『한국개혁신학』 제33호 (2012): 72-101

"제네바 예배모범"에 나타난 칼빈의 예배 개혁 신학과 실천적 의미 연구

김 요섭

(안양대학교 역사신학)

〈한글초록〉

수많은 호칭 가운데 "종교개혁자"라는 호칭이야말로 칼빈의 생존 당시 칼빈 본인과 주변 사람들이 그를 평가하며 불렀던 가장 일반적이며 칼빈의 삶에 합당한 명칭 가운데 하나였다. 칼빈이 회복하고자 한 기독교의 참된"종교"란 당시 로마 교황주의자들의 미신적 의식들이 파괴해 놓은 교회 안에서의 바른 경건이었으며 이 경건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곧 예배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칼빈의 그의 종교개혁의 개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저작인『기독교강요』와 "교회 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관련 주석들을 중심으로 칼빈이 당시 로마 교황주의의 예전(禮典)을 어떤 점에서 비판하고 있으며, 또 바른 예배의 개혁을 위해 칼빈이 견지했던 신학적 원리들은 무엇이었는지 정리하고, 그 원리를 따라 칼빈이 제안한 예배 모범에서 찾을 수 있는 실천적 의의는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다.

칼빈은 당시 로마 교황주의자들이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한 우상 숭배적 의식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한다. 이는 그들이 인간적인 전통을 무분별하게 삽입하고서 이런 타락한 의식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투고일: 2012. 1. 14. 수정 투고일: 2012. 2. 15. 게재확정일: 2012. 2. 17.

듯이 교회의 권위와 사제 위계질서 체제(Hierarchy of Priests)를 통해 강요했기 때문이다. 칼빈이 개혁하여 실현하고자 한 바른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되고, 반드시 구체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경배로 나아가는 예배였다.

칼빈은 이런 바른 예배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복음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뚜렷이 선포되고 드러나야 하며 말씀의 진리가 예배의 핵심 주제가 되어야 함을 예배 개혁의 원리로 삼았다. 칼빈은 이런 예배 개혁의 원리를 바탕으로 참다운 예배를 실제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그의 제네바 예배 모범에서 말씀 중심의 예배, 불필요한 순서와 요소를 배제한 단순한 예배, 그리고 섬김과 나눔이 뒤따르는 예배를 제안하고 실천하려 했다.

* **주제어:** 존 칼빈, 하나님 예배, 교황주의의 예배 타락, 예배 개혁의 원리, 예배 개혁의 실제, 제네바 예배 모범

1. 서론

본 논문은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이 제안한 "제네바 예배 모범"에서 강조되는 예배의 형식이 16세기 제네바의 시대적 상황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개혁을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의 주제로 생각했던 칼빈이 일관되게 가지고 있었던 예배 개혁의 신학의 산물임을 밝히는 것이다. 칼빈은 지금까지 신학자, 목회자, 설교가, 인문학자, 사상가 혹은 정치가와 같은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 왔다. 그러나 그를 불렀던 수많은 명칭 가운데 "종교개혁자"라는 호칭이야말로 칼빈의 생존 당시 주변 사

람들이 그를 평가하며 불렀던 가장 일반적이며 칼빈의 삶에 합당한 명칭 가운데 하나였다. 칼빈의 후계자였으며 칼빈이 죽은 직후 그의 전기를 저술한 베자(Theodore de Beza, 1519-1605)는 그의 전기에서 칼빈을 부를 때 "우리의 개혁자"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다.[1] 칼빈 자신도 프란시스 1세에게 보내는 『기독교강요』 헌사에서 자신의 사역은 "개혁자"로서의 사명이었다고 말하면서 이제까지 자신의 모든 노력은 불명예스럽게 추락한 기독교의 "종교"를 회복하고 잔인한 폭정에 시달리고 있는 가련하고 어린 교회를 변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2]

칼빈이 자신의 사역과 삶을 평가할 때 개혁자로서 당시의 "종교"를 개혁하려 했다고 말했다면 그가 개혁하려 했던 "종교"의 핵심은 무엇이었으며 종교개혁의 이상을 가지고 당시의 교회를 개혁하려고 한 개혁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칼빈은 『기독교강요』(*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에서 참된 "종교"(*religio*)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으로서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앎으로써 오는 것"이라고 정의한다.[3] 구체적으로 칼빈은 참된 종교를 회복하기 위해 세 가지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첫째는 종교의 진리이고, 둘째는 성례의 바른 시행이며 마지막은 성경적인 교회 통치의 실현이다. 이 세 가지 개혁의 주제들은 칼빈이 슈파이어 제국 의회를 소집한 독일 황제 카알 5세에게 보내기 위해 1543년에 쓴 "교회 개혁의 필요성"에 잘 요약되어 있다.[4]

---

[1] Theodore de Beze, *A Life of Calvin,* translated by Francis Sibson (Philadelphia: Wetham, 1837), 1-98.

[2] John Calvin, Prefatory Address to King Francis I of France, 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이하 *Inst.*]=CO 2: 9.『기독교강요』의 한글 번역은 존 칼빈, 『기독교강요』, 전 3권, 김종흡 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을 사용하고 이후 권,장,절과 더불어 *Calvini Opera Omnia*의 권과 컬럼을 밝힌다.

[3] *Inst*, I. 2. 1=*CO* 2:34, *Inst*, I. 2. 2=*CO* 2: 35.

[4] John Calvin, *De Necessitate Reformandae Ecclesiae: Supplex Exhortatio ad Invictiss Caesarem Carolum Quintum*, CO 6:453-534. 이 글의 한글번역은 존 칼빈, "교회개혁의 필요성", 『칼빈작품선집』

> 하나님께서 초기에 루터와 다른 이들을 일으켜 구원의 길로 우리를 비추도록 횃불을 들게 하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건립하셨을 때, 우리의 종교의 진리와 순수하며 합법적인 하나님 예배와 인간 구원이 포함된 주요 교리들이 거의 다 무용지물이 되어 있었습니다.[5]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칼빈이 예배의 개혁을 성례의 회복이라는 두 번째 주제에 포함시키지 않고 종교의 진리 회복이라는 첫 번째 주제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그리고 첫 번째 주제 가운데 합법적인 하나님 예배의 회복이 바른 구원 교리의 회복보다 더 앞서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칼빈이 예배의 개혁을 교회 개혁의 가장 첫 번째 주제로 삼은 것은 예배 개혁에 대한 그의 지대한 관심을 잘 보여준다. 그러므로 칼빈이 회복하고자 한 기독교의 참된"종교"란 당시 로마 교황주의자들의 미신적 의식들이 파괴해 놓은 교회 안에서의 바른 경건이었으며 이 경건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곧 예배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순수한 종교와 미신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 또한 명백해진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 '종교'를 의미하는 희랍어 '유세베이아' 역시 정당한 예배를 뜻한다."[6] 맥키는 이와 관련해 16세기 종교개혁은 일반적으로 신학이나 교회 제도의 개혁이라고 기억되지만 사실상 종교개혁은 또한 특별히 예배의 개혁이었다고 주장한다.[7] 실제로 칼빈은 예배를 교회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본질이라고 생각했다.[8] 또 예배는 참 교회를 나타내는 외적인 표지라고 생각했다.[9] 따

III, 박건택 편역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9), 333-487을 사용했고 이하 *Necessity*로 표기하고 한글 번역본 페이지를 밝힌다.

[5] *Necessity*, 338=CO 6:459.

[6] *Inst.*, I. 12. 1=CO 2:86.

[7] Elsie Anne McKee, "Reformed Worship in the Sixteenth Century," in *Christian Worship in Reformed Churches Past and Present*, ed. Lukas Vischer (Grand Rapids: Eerdmans, 2003), 3.

[8]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그의 이름을 진실로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에 예배가 결합되어 있는바 이 예배로 우리는 그의 위대함과 탁월함에 합당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며 의식들은 마치 돕는 수단이나 도구처럼 이 예배를 돕는 것입니다." *Necessity*, 340=CO 6:459.

라서 칼빈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의 여부가 곧 참 교회와 거짓 집단을 구별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칼빈이 참된 교회의 외적 표지라고 주장한 말씀의 신실한 선포와 성례의 합당한 시행 두 가지가 모두 교회의 공적 예배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칼빈의 이러한 이해 속에서 참된 예배란 종교 개혁이라는 자신의 평생의 사명 가운데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칼빈이 참된 예배를 어떻게 생각했으며, 또 어떤 형식을 참된 예배의 형식으로 제안했는지 이해하려면 우선 종교와 교회의 "개혁자"로서의 칼빈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칼빈의『기독교강요』와 "교회 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관련 주석들을 중심으로 칼빈이 당시 로마 교황주의의 예전(禮典)을 어떤 점에서 비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바른 예배의 개혁을 위해 칼빈이 견지했던 신학적 원리들은 무엇이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원리를 따라 칼빈이 제안한 예배 모범에서 찾을 수 있는 실천적 의의는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칼빈의 예배 신학과 그 실천적 제안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주는 도전과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정리해 보려 한다.

2. 본론

2.1. 예배 개혁의 배경

칼빈은 당시 로마 교황주의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를 타락시켰으며 결국 예배를 우상 숭배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한다. 칼빈이 볼 때 당시 로마 교황주의자들이 범한 가장 큰 죄악은 합당한 예배에 대한 성

[9]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며 또 듣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지킬 때 거기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Inst.* IV.1.9=CO 2:754.

경의 가르침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인간의 본성에 맞게 고안해 낸 수많은 미신적인 행태들을 예배에 포함시켰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인간적 야망을 위해 이것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예배의 타락이었다. 칼빈은 로마 교황주의자들이 행하는 예전은 외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경건의 기준으로 평가해보면 "첫째, 그 의식들은 무익하기 때문에 너절하다는 것과 둘째, 화려한 허식으로 보는 사람들의 눈을 속이므로 기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주장한다.[10] 칼빈은 사람들이 육적으로 매력적인 요소들을 예배에 첨가시켜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은 타락한 인간 본성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분석한다.[11] 즉 아담의 타락 이래로 인류는 자신 안에 남아 있는 신성에 대한 감각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역한 채로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자신의 욕망에 맞게 무익한 우상 숭배의 방식을 고안해 왔다는 것이다.[12] 칼빈은 이런 의미에서 예배에서 각종 형상들을 사용하는 것이나 성해(聖骸)들을 경배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런 인위적인 요소들을 용납한 로마 교황주의자들의 의식은 하나님 예배가 아니라 우상숭배라고 선언한다.

> 하나님이 이미지를 통해 숭배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배가 제정되는 것, 성자의 이미지를 통해 기도를 드리는 것, 죽은 자의 뼈에 신적 영예를 표하는 것, 이런 것들과 기타 유사한 것들이 가증한 것인 만큼, 우리들은 그것들이 악하다고 주장합니다.[13]

---

[10] *Inst.*, IV. 10. 12=CO 2:875.

[11] *Comm. Ps.* 97: 7=CO 32:44. Eire는 칼빈이 인간의 타락 이후 신성에 대한 감각(*Sensus Divinitatis*)이 필연적으로 예배의 왜곡과 타락을 불러 온다고 주장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실 '신성에 대한 감각'은 인간들 사이의 미신과 우상숭배의 원천일 뿐이다." Carlos M. N. Eire, *War against the Idols: The Reformation of Worship from Erasmus to Calv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1986), 205."따라서 그런 예배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많은 외면적 화려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요구하고 인정하시는 겉치레가 덜한 예배보다 우리의 육적 본성에 더 끌리는 것입니다." *Necessity*, 373=CO 6:479.

[12] *Inst.* I. 11. 4=CO 2:77.

칼빈은 이와 같은 로마 교황주의자들의 왜곡된 예전은 하나님을 향해서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각각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우선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런 왜곡된 의식은 하나님께서만 예배를 통해 받으셔야 할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14] 교황주의자들이 미신적 예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수단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성인들의 기도를 드리는 행태이며, 둘째는 예배 가운데 각종 형상들을 사용하고 인간적인 전례 의식들을 포함시키는 행태이다. 성인을 향한 기도의 행태는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만 가지고 계신 중보의 지위를 찬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타락이다.[15] 교황주의자들의 예전은 성인이나 기타 인간의 공로를 더불어 인정함으로써 결국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드러져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이다. 또 교황주의자들은 수많은 인간적인 전통을 혼합시켜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진실한 경배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할 예배(Dei cultus)를 인간들의 기억이나 기쁨을 위해 이루어지는 종교행사로 변질시켰다.[16] 칼빈은 이처럼 로마 교황주의자들이 성인에 대한 숭배나 각종 의식들의 혼합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예배의 유일한 주인공이 되지 못하시고 사람이 예배 가운데 그분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거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게 만들었다고 강력하게 비판한다.[17]

---

[13] *Necessity*, 366=CO 6:475.

[14] "그들은 말로 모든 선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만 실제로는 절반내지는 그 이상을 약탈합니다." *Necessity*, 342=CO 6:460.

[15]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배제함으로써 각 사람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수호성인들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설령 그리스도에게 한 자리가 제공된다고 할지라도 그는 일반 사람들처럼 군중 속에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Necessity*, 346=CO 6:462.

[16] "이것의 첫 번째 죄악은 예배가 경건의 살아 있는 실천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로 단호히 폐지하신 허다한 전례 의식으로 인해 사람들이 하찮고 무익한 수많은 의식들에 헛되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Necessity*, 346=CO 6:462.

[17] "그리고 미신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태양과 별들, 그리고 우상을 위해 고안해 냈

다른 한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로마 교황주자들의 우상숭배적인 예전의식은 참여하는 신자들의 영적 지식을 마비시키며 그들의 양심을 죄책감으로 억압하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칼빈은 로마 교황주의의 부패한 사제 중심적이며 왜곡된 예전 중심적 예배가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의 약속을 깨닫게 하기 보다는 도리어 그들의 지식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18] 한 예로 로마 교황주의자들의 미사 가운데 드려지는 공적 기도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칼빈은 이것이야 말로 이러한 예배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들은 사도의 솔직한 비난을 무시하고 태연하게 외국어로 장구한 기도를 고고하게 드리지만 그 말의 뜻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19] 성례전 역시 말씀의 선포 없이 사제들의 계급체제의 권위 아래에서 무익하고 미신적인 의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왜곡된 예배는 결국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바른 지식을 빼앗으며, 이로 인해 그들의 양심을 죄책감으로 속박한다. 즉, 로마 교황주의자들의 요구하는 그런 의식과 이에 뒤따르는 행위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하여 양심을 죄책감으로 짓누르는 것이다. 칼빈은 로마 교황주의자들이 첨가한 엄청난 수의 의식들은 이렇듯 사람들의 양심을 괴롭히는데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현재 우리가 인간이 만든 법들의 압제를 비난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는 가련한 양심들이 그 법들에 의한 무수한 명령과 가혹한 강요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

다. 다음에는 야심이 뒤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썩어 없어질 인간을 장식하고 신성한 것은 모두 더럽히고 말았다. 우리는 이와 같은 큰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나님만이 독점하고 있는 것을 수많은 우상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 *Inst.*, I. 12. 3=CO 2:88.

[18] "그 의식의 목적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마비시키려는 데 있다는 것은 사실 자체가 분명히 보여준다." *Inst.*, IV. 10. 12=CO 2:875.

[19] *Inst.*, III. 20. 33=CO 2:660.

다."[20] 결국 사람들에게서 바른 지식을 빼앗고 그들의 양심을 속박함으로써 이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로마 교황청의 권력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것이 인간적 필요를 따라 고안된 미신적 요소를 예배에 첨가한 교황주의자들의 허례허식의 종착점이다.

이처럼 바른 "종교"의 회복을 위해 바른 예배가 세워져야 한다는 칼빈의 절실한 개혁 의지는 이런 당시 예배 왜곡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나온다. 칼빈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성경의 가르침과 초대 교회의 모범을 따르는 예배를 주장하는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교황주의자들이 예배에 첨가해 놓은 그 미신적인 의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양심을 억압하는 우상숭배가 되어 버렸다는 종교개혁 시대의 예배에 대한 신학적 반성이다.

2.2. 예배 개혁의 신학적 원리

칼빈은 로마 교황주의의 왜곡된 예배를 개혁하려 할 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경배의 자세를 기초로 참된 예배의 원리를 주장한다. 칼빈이 말한 예배 개혁의 원리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모든 예배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참다운 경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하나님만이 인정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참되고 순수한 하나님 예배가 이상과 같은 것들[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배의 마음과 태도]에 들어있다는 것은 성령이 성경을 통해 가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경건에 대한 의식 자체조차 긴 토론이 없이도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21]

---

[20] *Inst.*, IV. 10. 1=CO 2:877.

[21] *Necessity*, 340=CO 6:459.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다만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는 은혜만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예배이다.[22]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바른 예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중보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필수적이다. 칼빈은 요한복음 4장 22절의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라는 말씀을 주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식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요 환상이나 우상이 될 것이다." 칼빈이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영원한 구원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다. "이 모든 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 그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결코 생겨날 수 없는 믿음의 확신이 아니면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누구나 우상 숭배로 전락하게 된다."[23] 칼빈이 예배 가운데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 대해, 월레스는 칼빈이 설교를 그리스도께서 회중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통치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여겼다고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주로 선포된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신다고 여겼다."[24]

둘째, 참다운 예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지는 순수한 예배여야 한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예배는 인간의 필요에 따른 고안물로 거추장스럽게 장식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으로 선과 의를 규정하고 따라서 인간이 제멋대로 예배를 만들어 내지 못하도

---

[22]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영광을 그 누군가가 그분과 나누어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적들이 수시로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는 바, 그리스도는 과연 단 한 분의 구속의 중보이시지만 모든 성인들도 속죄의 중보자가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무서운 모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Necessity*, 427=CO 6:504.

[23] *Comm. John* 4:22=CO 47:87.

[24] Ronald S. Wallace, *Calvin Doctrine of the Word and Sacrament* (Edinburgh: Scottish Academic Press, 1995), 87.

록 일정한 규범에 그들을 붙들어 두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25]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릴 때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먼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 안에서 그 권위를 세우게 되며, 또 우리가 허망한 길에 빠져 미신 가운데 헤매지 않고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또한 주님이 우리가 그릇된 예배를 만들어 냄으로써 그의 진노를 초래하지 않도록 자신의 입으로 우리에게 한계를 정해주신 것도 정당합니다."[26]

칼빈은 예배의 방식과 관련하여 십계명의 제 2계명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이 계명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다. 첫째 부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감히 우리의 감각적 지각에 예속시키려는, 바꾸어 말하면, 그를 어떤 형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우리의 무엄한 짓을 억제한다. 둘째 부분은 종교의 이름으로 어떤 형상을 경배하는 것을 일체 금한다."[27] 이런 성경 이해에 기초해 칼빈은 그의 요한복음 주석에서 교황주의자들이 인간의 요구에 맞추어 고안하고 첨가한 부적절한 예배의 요소들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종류의 의식들로 채워지지 않았다고 교황주의자들이 거부하는 단순하고 순수한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 이미 언급된 말씀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 예배인가? 그것은 오래된 의식들의 족쇄를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안에서 영적인 것만을 붙잡는 것이다.[28]

---

[25] *Inst.*, I. 12. 3=CO 2:89."나아가 순수한 하나님 예배와 더러워진 예배 사이를 식별하는 일반적인 법칙이 있는바,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보이는 것을 그대로 만들어내지 않고 오직 제정권을 가지고 계신 이가 규정하신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Necessity*, 341=CO 6:459.

[26] *Necessity*, 341-342=CO 6:460

[27] *Inst.*, II. 8. 17=CO 2:279.

[28] *Comm. John* 4:23=CO 47:90.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 이상의 요소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로마 교황주의의 예배와 비교하면 그 형식이 훨씬 더 단순하고 간결할 수밖에 없다. 칼빈은 요한복음 4:23절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그 때"는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나타나신 이후를 의미하며 그 때 이후로는 구약 시대의 비유적인 의식들은 무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하나님께 예배할 길이 열린 것이라고 주장한다.[29]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신 후에는 순수하고 단순하게 말씀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예배의 삶이 모든 예배의 기본적인 원리이다. "모든 시대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기도, 감사와 순수한 마음, 그리고 순결한 삶으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한 순간도 어떤 다른 제물은 기뻐하신 적이 없다."[30] 물론 예배를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순수하고 단순하게 드린다고 해서 모든 의식들이나 형식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칼빈은 형식과 도구들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만 칼빈이 강조하는 것은 예배 의식들이 그리스도를 가로막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하고 명료한 예배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 나는 그런 도움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를 숨기는 것이 아닌 나타내는 방법을 사용하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 수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효를 적게 하고 지키기 쉽게 하며 표현을 존귀하고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31]

---

[29] "새로운 경배자들이 옛날 경배자들과 다른 점은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 대한 영적 경배를 이를테면 여러 가지 의식으로 감싸서 비유적으로 나타냈지만 지금은 이런 의식들을 폐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단순하게 경배한다는 것이다." *Inst.*, IV.10.14=CO 2:877.

[30] *Comm. John* 4:2=CO 47:89.

[31] *Inst.*, IV.10.14=CO 2:877.

셋째, 참된 예배는 건물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총체적인 경배가 되어야 한다. 칼빈은 말씀대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강조한다. "하나님 예배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불리는데, 이 영이란 기도와 양심의 순결함과 이후에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부정을 일으키는 마음의 내적 믿음을 의미한다."[32] 그러므로 참된 경배는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참다운 경배는 오히려 삶 전체를 통해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경건을 의미한다.[33] 이런 원리에서 볼 때 교황주의자들의 허례의식은 삶에서의 경배와는 거리가 멀다. "이 빵을 받아도 믿음이 영양과 함께 힘을 얻지 못하며 감사할 생각이나 사랑할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무서운 독약이 된다… 믿음의 흔적도 없으며 사랑하겠다는 열의도 없이 돼지같이 성찬에 뛰어드는 이런 사람들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다."[34]

칼빈은 진정한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에서 한층 더 나아가 삶 전체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경배의 삶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바른 예배는 특정한 예배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또한 우리는 이런 갱신에 뒤따르는 외적 의무와 사랑의 행위를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아는 확실하고

---

[32] *Comm. John* 4:23=CO 47:88.

[33] "이는 몸이 영혼과 더불어 하나님 예배를 실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에는 자기부정이 따르는데, 이는 우리가 육과 세상을 부인함으로써 변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더 이상 우리 자신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지배되며 행동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자기 부정으로 우리는 그의 뜻에 복종하고 헌신하는데 이끌리며 그리하여 그에 대한 경외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을 제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Necessity*, 340=CO 6:459.

[34] *Inst.*, IV. 17. 40=CO 2:1042.

> 무오한 예배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 교회의 유일한 예배입니다.[35]

그러므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의 삶, 이것이 칼빈이 회복하고자 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바른 예배의 본질적인 모습이며 예배 개혁의 원리이다.

2.3. "제네바 예배 모범"에 나타난 예배 개혁의 실천적 함의

칼빈은 예배 개혁의 원리를 따라 구체적인 개혁의 현장에서 예배의 순서와 형식을 실제적으로 제안하고 실천했다.[36] 마틴 부처가 종교개혁을 주도하던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작성된 1540년 예배 모범과 이를 기초로 칼빈이 제네바로 복귀한 후 1542년 작성된 제네바 예배모범은 다음과 같이 예배의 순서를 제안했다.[37]

---

[35] *Necessity*, 365=CO 6:461. "의식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 확실히 모두가 부패하고 유해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현재 교황 제도 하에서 사용하는 의식들은 가르침과 분리되었고 순전히 무의미한 표징으로 사람들을 구속한다."*Inst.*, IV. 10. 15=CO 2:878.

[36] Wendel은 칼빈이 1539년부터 1541년까지 스트라스부르크에 체류하면서 경험하고 시행한 예배 의식의 일반적인 절차와 가장 특징적인 형식들을 제네바 예배 형식에 그대로 빌어 왔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제네바 예배 모범이 규정한 예배 절차에 나타나는 죄의 고백, 성만찬에서 암송하는 감사의 기도, 결혼식 모범, 그리고 시편 찬송 등은 스트라스부르크의 예배 의식이 칼빈의 제네바 예배 모범에 영향을 준 결정적인 증거들이다. Francois Wendel, *Calvin: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trans. Philip Mairet (London: William Collins, 1950), 60, 80.

[37] 칼빈의 제네바 예배 모범의 원문은 *La forme des prieres et chantz ecclesiastuques avec la maniere d'administrer les sacremens et consacrer le mariage selon la coustume de l'Eglise ancienne*, 1542, CO 6: 165-210 참조. 칼빈이 1542년 제네바에서 제안한 예배 모범은 성만찬 권면을 강조하는 것 이외에는 스트라스부르크 예배 모범과 거의 같다. 칼빈의 예배 모범의 발전 과정과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주승중, "초기교회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던 칼빈의 예배 - 스트라스부트크 예전(1540년)을 중심으로", 『칼빈과 한국교회: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움 논문집』 (서울: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회, 2009), 75-95 참조.

스트라스부르크 예배 모범 (1540)	제네바 예배 모범 (1542)
예배의 부름	예배의 부름 (시 124:8)
죄의 고백	죄의 고백
용서의 말씀과 사죄 선언	속죄기도
십계명 찬송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	운율 시편송
운율 시편송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
성경봉독	성경 봉독
설교	설교
구제헌금	구제헌금
성물준비 (사도신경)	주기도문 해설
중보기도와 성찬기도	성물준비(사도신경송)
주기도문	성찬 제정사와 권면
권면과 성찬 제정사 (고전 11:23-29)	성찬 기도
성체 분할과 분병 분잔	성체분할과 분병 분잔
성찬참여 (찬송, 시편송)	성찬참여 (성경, 시편송)
감사기도와 찬양 (눅 2:29-32)	감사기도와 찬양 (눅 29-32)
아론의 축도 (민 6:24-26)	아론의 축도 (민 6:24-26)

이상의 예배 모범은 세 가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칼빈의 예배 개혁의 원리들이 구체적인 예배의 실천 제안에서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조의 원리이다. 말씀대로 시행되고 말씀만이 선포되는 예배에 대한 강조는 예배 모범에 제안된 각 순서들 모두에 적용된다. 예배의 첫 시작인 예배의 부름과 사죄의 선언 모두 사제의 개인적인 권위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대신 선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이제 목사는 양심을 위로하는 성경 말씀 중 하나를 전하고 이어서 사죄를 선언한다.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진심으로 인정하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읍

> 시다.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죄의 용서가 이루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38]

칼빈은 목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자들의 마음에 전해서 그 말씀이 도장을 찍듯 역사하도록 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목사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복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것을 직무로 삼는 사람이다."[39] 그러나 칼빈은 이 주장에 바로 이어서 이것이 예배 가운데 목사가 어떤 신적인 권능을 대리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고 제한 조건을 첨부한다. "그러나 목사가 항상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즉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것이 없으면, 일정한 멍에로 사람의 양심을 속박해서는 안 된다."[40] 칼빈의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로마 교황주의자들이 미사 가운데 사제가 죄를 용서할 권한을 직접 부여 받아 그것을 가지고 신자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식의 사죄를 선포한다는 주장을 비판하는 칼빈의 개혁적 예배 이해가 반영되어 있다. 즉, 예배 가운데 목사가 시행하는 사죄의 선포는 오직 말씀에서 선포하는 용서의 반복일 뿐이며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하는 당사자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고백하게 하여 완전한 위로를 얻게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칼빈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만 용서를 선포해야 "목사 측의 횡포와 교인들의 미신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41]

칼빈은 설교와 더불어 성만찬을 강조했다. 비록 제네바 시의회의 반대로 제네바 예배 모범은 1년 네 차례 성만찬을 드리도록 법령으로 제정했지만 칼빈 자신은 성만찬의 횟수가 줄어든 것은 사탄의 농간이라고

---

[38] *La forme des prieres et chantz ecclesiastuques*, OS 6:173.

[39] *Inst.*, III.4.12=CO 2:466.

[40] *Inst.*, III.4.12=CO 2:466.

[41] *Inst.*, III.4.12=CO 2:466.

주장했고, 『기독교강요』 최종판에서도 매주 예배를 드릴 때 매번 성만찬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42] 그러나 이렇게 말씀과 성례전의 균형을 추구하면서도 칼빈이 놓치지 않는 강조점은 성만찬의 시행은 반드시 말씀의 선포와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칼빈은 성만찬과 세례의 성례는 약속의 말씀의 확증을 위한 부록(*appendicum*)과 같다고 보았다.[43] 그러므로 성례는 로마 교황주의자들의 예전처럼 아무런 설명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성례에 사용되는 표징을 설명하는 말씀의 선포가 동반되어야만 한다.[44] 이를 위해서 제네바 예배 모범은 성찬 직전에 고린도전서 11:23-29를 사용한 성찬 제정사와 권면의 말씀이 반드시 선포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성찬 중에는 성경의 일부가 낭독되거나 참여하는 성도들이 함께 시편 138편 찬양 등을 불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예배 모범은 성찬 직후에도 감사기도와 더불어 누가복음 2:29-32절의 시므온의 찬양을 반드시 부르도록 규정했다. 이런 실천적 제안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감정적 반응보다는 성만찬과 관련한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해 이 성례의 이해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려는 칼빈의 예배 개혁의 원리를 반영한 것이다.[45]

예배 가운데 설교 역시 목사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제네바 예배 모범은 성경 봉독과 설교 전에 회중들뿐 아니라 설교자 자신이 먼저 주어진 말씀에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함을 명시했다.[46] 이는 성

---

[42] *Inst.*, IV. 17. 46=CO 2:1048.

[43] "성례에는 반드시 선행하는 약속이 있으며 성례는 이 약속에 붙인 부록과 같다." *Inst.*, IV. 14. 3=CO 2:942.

[44] "이것은 내가 다른 곳에서 말씀이 없으면 성찬은 바르게 집행될 수 없다고 한 말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우리가 성찬에서 받는 은혜에는 모두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거나 고백을 연습하거나 의무에 대한 열의를 일으키거나 하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는 설교가 필요하다." *Inst.*, IV. 17. 39=CO 2:1042.

[45] 성례 시행에 있어서 말씀을 통한 제정의 중요성에 대한 칼빈의 생각과 그 실천에 대해서는 Bard Thompson,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Philadelphia: Fortress, 1961), 191-93 참조.

령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없이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 칼빈의 예배 개혁의 원리를 반영한다. 성경 본문의 선택 역시 설교자의 취향이나 교회의 상황에 의해 매주 달라지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개혁자들은 거의 모두 교회의 필요를 따라 로마 교황청에서 명령한 성구집 사용을 거부했고 대신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 가며 강해하는 연속적 읽기(*lectio continua*)를 선호했다.[47] 칼빈 역시 오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의 특정한 절기를 제외하고는 본문을 따라 강해 설교를 했고 이런 설교는 제네바에서 벌어진 정치적 격변이나 특정한 대내외적인 재난이나 박해 시에도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칼빈 자신은 설교 가운데 예화나 예증을 사용하기 보다는 성경 본문을 구구절절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자신이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데 설교 시간을 집중해서 사용했다.

둘째, 칼빈의 제네바 예배 모범은 미신적인 허례허식을 제거하고 예배 순서의 단순 명료화를 추구하고 있다. 제네바 예배 모범이 그 제목에서"사도적인 고대 교회의 예배 방식을 따라"라고 명시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예배 모범이 제시하는 예배는 교황주의가 첨가해 놓은 불필요하며 우상숭배적인 요소들을 제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48] 칼빈은『기독교강요』에서 인간적인 의식들이 사도 시대 이후 필요를 따라 점차적으로 예배

---

[46] "회중들이 시편을 찬송한 후 목사는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써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마땅한 겸손과 순종으로 말씀을 받아 교회가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설명될 수 있게 해 달라고 구해야 한다." *La forme des prieres et chantz ecclesiastuques*, CO 6:174.

[47] Horace, T. Allen, Jr., *A Handbook for the Lectionary* (Philadelphia: Geneva Press, 1980), 34. 칼빈이 말하는 강해설교는 단순히 성경 본문을 순서를 따라 읽어가는 *lectio continua*만을 의미하지 않고 성경 본문의 내용을 성경의 문맥 가운데 단순하고 명료하게 전하는 설교를 의미한다. 개혁주의의 "강해설교"의 정의를 둘러싼 오해와 바른 개념과 관련해 류응렬 교수는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에게 의도한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청중하게 적실하게 적용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류응렬, "한국교회 개혁주의 설교의 정착을 위한 8가지 제언",「한국개혁신학」제26권 (2009): 182.

[48] Thompson,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194.

가운데 첨가되다가 이제는 여러 인간적인 요소들이 예배 자체를 완전히 타락시켰다고 진단한다.[49] 그러므로 칼빈은 성례전을 말씀의 선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방식대로 단순하고 명료하게 집행할 것을 주장했고 제네바 예배 모범 역시 이와 같은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목사는 성찬을 집행할 때 로마 사제들과 같은 화려한 의복을 입거나 마술적인 주문을 말해서는 안 되며 단정하고 정숙한 가운데 회중들이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성찬대 앞으로 나와 성찬을 받았다.[50] 예배를 마치는 축도 역시 사제들이 존재론적으로 부여 받은 축복의 권리로 복을 시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을 선언하는 것이다. 칼빈 역시 마틴 부처를 비롯한 스트라스부르크 개혁자들이 제시한 예배 모범에서와 같이 매일의 예배와 주일 예배에서 고린도후서 13:13절의 바울의 축도보다는 민수기 6:24-26의 아론의 축복을 더 자주 사용했다.[51]

또 칼빈은 각종 형상들과 허식들로 채워진 교황주의의 예배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며 단순하고 순수한 예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와 같은 괴물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이 만든 성자의 화상, 혹은 조상은 가장 음란한 실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52] 이런 맥락에서 칼빈은 당시 로마 교황주의자들이 요구하는 예배 의식 가운데 상당 부분을 제거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53] 제네바 예배 모범이 말씀과 두 가지 성례만을 포함한 예배 형식을

---

[49] "사도 시대에는 주의 만찬을 아주 간단하게 지켰다. 사도 직후의 사람들은 이 신비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첨가했으나 그것은 배척할 정도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미련한 모방자들이 후계자가 되어 때때로 하나 둘씩 덧붙이다가 마침내는 현재 미사에서 보는 사제복과 성단 장식과 몸짓과 그 밖의 무익한 장치 전체를 고안해 냈다." *Inst.*, IV. 10. 19=CO 2:882.

[50] William Maxwell, *A History of Christian Worship*, 정장복 역, 『예배의 발전과 그 형태』 (서울: 장신대 교회커뮤니케이션 연구원, 1994), 161.

[51] *La formes des prieres et chantz ecclesiastique*, CO 6:202.

[52] *Inst.*, I. 11. 7=CO 2:79.

[53] "그러나 시작은 어떻든 간에 지금은 모든 의식이 더러운 이익에 팔려 있어서, 이 불경하고 모독적인 장사를 교회에서 일소하려면 그 의식의 적지 않은 부분을 잘라버려야 한다." *Inst.*, IV. 10. 15=CO 2:878.

제안하고 있는 것은 칼빈이 각종 형상들의 사용을 금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려 했던 개혁적 예배 원리를 반영한다. 그는 인간적인 요소들을 배제한 단순하고 순수한 예배는 "말씀의 전파와 성례전을 통해 한 공통된 교리가 모든 사람에게 제시되는" 예배라고 주장한다.[54] 그리고 이런 순수한 예배를 통해 제시되어야 하는 교리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받을 저주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자기의 육체를 희생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자기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며 요컨대 우리를 성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을 충분히 또는 진실하게 배웠다고 하면 대체 무슨 목적으로 나무와 돌과 금, 은으로 그렇게 만든 십자가상을 교회 도처에다 세웠겠는가?[55]

셋째, 제네바 예배 모범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삶을 강조한다. 톰슨은 삶에 대한 칼빈의 예배 이해를 루터와 비교하여, 루터가 예배를 통해 은혜의 위로를 강조했다면 칼빈은 은혜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따른 삶을 강조했다고 평가한다.[56] 물론 칼빈이 루터에 비해 복음의 위로를 약화시키고 더 율법주의적인 예배를 제안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사용, 주기도문 인용, 그리고 성찬을 위한 철저한 자기반성 등을 강조한 것은 삶으로 확장되는 예배의 개혁이라는 칼빈의 예배 원리를 반영한다. 칼빈은 "교회개혁의 필요성"에서 로마 교황주의자들의 미신적인 허식이 제거된 순수한 예배를 주장하면서 바른 하나님 예배는 마음의 진실함이 담긴 순수한 실천이 동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 그것은 하나님은 의식 자체만이 고려되는 의식에 머물거나 그것을 가치 있

---

[54] *Inst.*, I.11.7=CO 2:79.

[55] *Inst.*, I.11.7=CO 2:80.

[56] Thompson,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194.

> 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분은 마음의 믿음과 진실을 감찰하신다는 것이며, 그가 의식을 명하고 인정하시는 유일한 목적은 다만 신앙과 기도와 찬미의 순수한 실천이 되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57]

칼빈은『기독교강요』에서도 로마 교황주의자들의 연극적인 의식들을 비판하면서 형식이 아닌 실천의 열매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예절은 거룩한 신비에 대해서 경외를 표시하는 데 적합한 것이며 경건의 합당한 연습이고 적어도 예배 행위에 합당한 장식이 될 것이다. 이것은 결실이 없지 않고 거룩한 사물에 대해서 고도의 겸양과 경건과 경외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신자들에게 가르치게 될 것이다.[58]

그러므로 예배를 위해 필요한 의식은 신자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이끌어 경건의 훈련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중 예배를 위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구체적인 순서를 정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에게 이끌림을 받아 경건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59]

제네바 예배 모범은 예배 가운데 삶의 실천을 위해 성찬 순서에 구제 헌금의 순서를 포함시켰다. 이는 참된 예배에는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와 사랑의 섬김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칼빈의 예배 이해를 반영한다.[60]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표를 받아 그 상징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서로

---

[57] *Necessity*, 370,=CO 6:478.

[58] *Inst.*, IV. 10. 29=CO 2:888. 칼빈은 같은 곳에서 삶의 실천이 동반된 참 예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의식의 경건의 연습이 되려면 우리를 직접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야 한다."

[59]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우려는 질서는 일시적인 호화로움에 불과한 너절한 허식이 아니라 모든 혼란과 야만성과 불순종과 소란과 분쟁을 제거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Inst.*, IV. 10. 29=CO 2:888.

[60] McKee는 구제를 통한 사랑의 교제가 칼빈 이후 개혁주의 예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평가하면서 칼빈은 사도행전 2:42의 모범을 따라 예배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서 영적인 필요뿐 아니라 육적인 필요까지 나누는 것임을 강조했다고 주장한다. McKee, "Reformed Worship in the Sixteenth Century," 23-24.

사랑하는 일에 관련된 모든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필요하고 능력이 미치는 대로 아무도 형제를 해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며 도울 수 있는 일을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61] 즉 구제와 봉사는 참된 예배를 위한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칼빈은 사도행전 2:24절을 통해 이처럼 섬김과 나눔이 있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을 보면 사도 시대의 교회에서는 신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것이 습관이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집회에서는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드리며 성찬에 참여하며 구제하는 것이 정칙이 되어 있었다."[62] 구제를 통한 섬김과 나눔은 이처럼 말씀의 선포와 공적 기도, 그리고 성찬의 시행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이다. 제네바 예배 모범은 예배의 순서와 성찬의 시행에 대한 지침뿐 아니라 결혼의 절차와 병자들에 대한 심방까지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점 역시 구체적인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교제까지 참된 예배의 영역에 포함시키려 한 칼빈의 개혁적 예배 원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63]

3. 결론: 칼빈의 예배 개혁의 현대적 의미

칼빈은 종교개혁자로서 바른 예배의 개념을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그 위에서 목회 현장에서 실현가능한 예배 모범을 제시했다. 그의 예배 개혁 신학은 단순히 어떤 완벽한 예배의 형식을 구현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들이 항상 예배의 외형의 근거가 되는 자신들의 동기와 목적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항상 점검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신학과 실천이 조화를 이룬 통

---

61 *Inst.*, IV.17.44=CO 2:1046.

62 *Inst.*, IV.17.44=CO 2:1046.

63 *La formes des prieres et chantz ecclesiastique*, CO 6:204-10.

전적 주장이었다. "제네바 예배 모범"에 나타난 개혁된 예배의 새로운 형식은 이 예배 모범을 제안한 칼빈의 종교개혁 신학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칼빈은 당시 로마 교황주의자들이 미신적 행태들로 타락시킨 예배를 개혁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종교개혁의 가장 첫 번째 과제로 삼았다. 칼빈이 보기에 로마 교황주의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한 우상 숭배적 의식에 불과한데 이는 인간적인 전통을 무분별하게 삽입하고서 이런 타락한 의식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듯이 교회의 권위와 사제 위계질서 체제(Hierarchy of Priests)를 통해 강요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참다운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되고, 반드시 구체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경배로 나아가는 예배이다. 칼빈은 이런 참다운 예배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복음에 기초를 두어야 한며 이를 위해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뚜렷이 선포되고 드러나야 하며 말씀의 진리가 예배의 핵심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칼빈은 이런 신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참다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말씀 중심의 예배, 불필요한 순서와 요소를 배제한 단순한 예배, 그리고 섬김과 나눔이 뒤따르는 예배를 "제네바 예배 모범"에서 제안한 것이다.

기독교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헌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개혁의 원리 역시 신학적 반성과 역사적 교훈을 무시한 채 시대적 조류와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예배의 외적 현상의 변화에만 집착하는 무조건적인 대안 제시나 일종의 균형 잡기는 아닐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의 개혁주의 교회가 16세기 종교개혁의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자처한다면 칼빈이 시도한 예배 개혁의 노력과 그 개혁적 원리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예배를 점검하는 데 있어 가장 유용한 기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칼빈의 예배 개혁 신학과 "제네바 예배 모범"은 시대의 유행에 따라 만들어진 지나가 버린 또 다른

하나의 역사적 유물이 아니다. 도리어 그의 예배 신학과 그 위에 기초한 예배 개혁의 실천은 보편적인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배의 타락에 맞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바른 예배를 회복하려 했던 노력의 결과이기에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예배를 점검할 때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칼빈의 예배 원리와 실천 노력을 보며 오늘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이외의 다른 추구하는 바는 없는지, 성경이 가르치는 것 이외의 불필요한 요소는 관습을 따라 첨가되어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 특별히 말씀의 내용보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포함한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더 부각되는 오늘날의 예배의 현실에 대한 신학적, 실천적 반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회에서 칼빈의 주장과 같이 되도록이면 예배 가운데 자주 성찬을 시행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필요하다.[64] 그러나 이렇게 예배에 있어 말씀과 성례전의 조화를 추구하되 성례전의 요소들이나 의식 자체가 영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표징임을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과 예배 가운데에서 잘 설명되어야 한다. 참교회의 표지를 말씀과 성례로 강조한 칼빈과 이후 개혁주의 교회의 예배 이해를 고려할 때, 최근 한국 교회 예배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 가고 있는 경배와 찬양, 멀티미디어의 사용 등이 개혁주의의 예배 신학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점검에 있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른 예배의 기준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반응 여부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칼빈과 개혁주의의 일관된 예배 신학이어 한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주일 교회에서의 예배에 머무르지 않는 구체적인 삶으로서의 헌신으로 이어지는 예배를 향한 탐구와 시도들이 한

---

[64] 한국 교회 예배에서 성찬이 등한시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일웅 교수는 성찬을 가톨릭의 유산으로 생각하는 오해와 번거로움이라는 핑계가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성찬을 "가시적 은혜"로 이해해 왔던 칼빈의 예배 이해를 망각한 것이며 참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라고 진단한다. 정일웅, "한국교회의 예배 변화와 예전의 문제성", 「한국개혁신학」 제24권 (2008): 110-11.

국 교회 안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삶으로 드리는 섬김을 영적 예배의 열매라고 강조했던 칼빈의 예배 이해로부터 여전히 의미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Abstract〉

Calvin's Reformed Theology & Worship in "the Form & Prayers & Songs & the Church in Geneva"(1543)

Joseph Kim

(Anyang University)

Among a lot of titles, "the Reformer" is one of the most suitable titles of John Calvin. The foremost issue of Calvin's idea of religious reformation was the true Christian piety, which had been deformed by the superstitious rituals of the Roman Church. Calvin thus counted the restoration of the worship of God as the most important task for the Christian p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llustrate the meanings of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of Calvin's ideas of reformation worship. To illustrate Calvin's theological principles, this paper examines Calvin's *Institutes* (1559), the *Necessity of Church Reformation* (1543) with his commentaries for this purpose, and analyses his criticism of the Roman Church in this respect. Calvin criticizes that the Roman Church had robbed God of His glory by imposing many human traditions in the worship of God which should be obeyed for salvation in their hierarchical system of priests. However, according to Calvin, the right worship of God can be restored by the clear proclamation the salvation by the grace of Christ's cross, and sincere commitment to the Gospel in life. For Calvin, therefore, plain and clear manifestation of

the Gospel in worship service, and the service in daily life are the key points of the reformation of worship.

This paper then examines "the Form of Prayers and Song of the Church in Geneva" (1543) in oder to manifest how Calvin endeavored to realize his principles of reformation worship in his ministry in Geneva. Calvin proposed and attempted to establish of the true worship of God in Geneva. Notable features of his proposal of the worship service in Geneva reflect his principles of the reformation of the worship of God: The Word of God should take the center of the worship, unnecessary and superstitious human elements should be eliminated for the simple worship, and service and fellowship should be followed worship in life.

* **Key words:** John Calvin, the Worship of God, Corruption of Worship in the Roman Church, the Principles of Worship Reformation, the Practices of Worship Reformation, The Form of Prayer and Song in the Church of Geneva

〈참고문헌〉

Beze, Theodore de. *A Life of Calvin.* Translated by Francis Sibson. Philadelphia: Wetham, 1837.

Calvin, Joh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XII. Translated by J. K. S. Reid. Edited by J. K. S. Reid.

London: SCM,1954.

_____ . *Calvin's Commentaries*. 46 Vols. Edinburgh: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44-1855. Reprinted as 22 Vols. Grand Rapids: Baker, 1979.

_____ .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s. XX and XXI.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전 3권. 김종흡 외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8.

_____ .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 sunt omnia*. Edited by G. Baum, Edward Cunitz, and Edward Reuss. 59 Vols. Brunsvigae: C.A. Schwetschke und Son, 1863-1900.

_____ . *Joannis Calvini Opera Selecta*. Edited by Peter Barth, Wilhelm Niesel, and Dora Schenuner. 5 Vols. München: Christian Kaiser, 1926-1962.

_____ . *Tracts and Treatises*. 3 Vols. Translated by Henry Beveridge. London: Oliver and Boyd, 1844-1851.

_____ . *De Necessitate Reformandae Ecclesiae: Supplex Exhortatio ad Invictiss Caesarem Carolum Quintum*. CO 6: 453-534. 존 칼빈. "교회개혁의 필요성." 『칼빈 작품 선집』 III. 박건택 편역.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9: 333-487.

Eire, Carlos M. N. *War against the Idols: The Reformation of Worship from Erasmus to Calv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Graham, W. Fred.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and His Socio-Economic Impact*. Richmond: John Knox Press, 1971.

Hamman, Gottfried. *Entre la secte et la cite*. Geneve: Labor et Fide, 1984.

Horace, T. Allen, Jr. *A Handbook for the Lectionary*. Philadelphia: Geneva Press, 1980.

Maxwell, William. *A History of Christian Worship*. 정장복 역. 『예배의 발전과 그 형태』 서울: 장신대 교회커뮤니케이션 연구원, 1994.

McKee, Elsie A. *Elders and the Plural Ministry: The Role of Exegetical History in Illuminating John Calvin's Theology*. Geneva: Droz, 1988.

_____. "Reformed Worship in the Sixteenth Century." In *Christian Worship in Reformed Churches Past and Present*. Edited by Lukas Vischer. Grand Rapids: Eerdmans, 2003: 3-31.

McKim, Donald K. *Calvin and the Bible*. Cambridge: Cambrige Unviersity Press, 2004.

Naphy, William G. *Calvin and the Consolidation of the Genevan Reformation*.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4.

Niesel, Wilhelm. *The Theology of John Calvin*. Translated by Harold Knight.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6.

Parker, T. H. L. *Calvin's Preaching*. Edinburgh: T.& T. Clark, 1992.

_____. *John Calvin: A Biography*. Oxford: Lion Hudson, 2006.

Steinmetz, David. *Calvin in Contex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Thompson, Bard.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Philadelphia: Fortress, 1961.

Vischer, Lukas. *Christian Worship in Reformed Churches Past and Present*. Grand Rapids: Eerdmans, 2003.

Wallace, Ronald S. *Calvin's Doctrine of the Word and Sacrament*. London: Oliver and Boyd, 1953.

_____ .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A Study of Calvin as Social Reformer, Churchman, Pastor and Theologian.* Eugene: Wipf & Stock, 1998.

Weber, Robert. *Twenty Centuries of Christian Worship.* Nashville: Starsong Publication Group, 1994.

Wendel, François. *Calvin: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Translated by Philip Mairet. London: William Collins, 1950.

Witvliet, John. "The Spirituality of the Psalter: Metrical Psalms in Liturgy and Life in Calvin's Geneva." *Calvin Studies Society Papers, 1995, 1997*. Edited by D. Foxgrover. Grand Rapids: Eerdmans, 1998: 93-117.

류응렬. "한국교회 개혁주의 설교의 정착을 위한 8가지 제언". 「한국개혁신학」 제26권 (2009): 182.

정일웅. "한국교회의 예배 변화와 예전의 문제성". 「한국개혁신학」 제24권 (2008): 110-11.

주승중. "초기교회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던 칼빈의 예배 - 스트라스부르크 예전(1540년)을 중심으로". 『칼빈과 한국교회: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움 논문집』 서울: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회, 2009: 75-95.